

21세기
한국사회

‘여성인력 활용’ 정책 펴야

5일 21세기위원회서 윤호미 씨·장필화 교수 발표
출산·육아도 군경력처럼 인정해 재취업 보장 필요

물질주의와 권위적 관료주의시
대였던 20세기를 뛰어넘어 평등
과 공존의 인간주의시대, 21세기
로 나아가는 길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그 방안으로, 주변집단으로
소외돼 사장되어 온 여성의 인력
과 능력을 개발·활용하는 과감
한 정책을 펴나가는 방향에서만
가능하다는 주장이 여성들에
의해 제기돼 관심을 끈다.

지난 89년 대통령직속 자문기
구로 발족, 남성학자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21세기위원회(위원
장 이관)가 지난 12월 5일 라마
다 올림피아호텔 회의실에서
마련한 <21세기 한국사회에서의
여성의 역할>이라는 간담회에서
윤호미(조선일보 생활과학부장)
씨와 장필화(이대 여성학) 교수
는 각각 ‘도전세력으로서의 여
성’ ‘21세기 여성의 역할’이라는
주제의 글을 통해 이같은 주장을
펼쳤다.

윤호미 씨는 “여전한 불평등과
여성들이 소수·주변존재로 남아
있는 상황에서 21세기 여성의
역할을 짚어 보는 데 있어 완전한
평등사회 추구 노력이 우선적
과제”라 전제하고 21세기의 가장
큰 변화는 각 분야에서 여성들의
진출이 엄청나게 활발해질 것이
며 그것도 집단적으로 하나의
뚜렷한 ‘도전세력’의 기능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이러한 여성들의 도전은
여성발전의 핵심은 물론 한국사
회 전체의 도약을 유도하는 활력
이기 때문에 여성의 도전을 국가
발전 차원에서 이끌고 응답하는
정책과 전략을 장기적으로 마련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한국의 21세기 준비는 △여성의
진출을 집중 지원하는 전담기구
설치, △여성들의 진출에 장애요
소인 출산·육아책임을 국가적
문제로 인식, 이를 남성의 군경력
처럼 인정하는 방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장필화 교수는 ‘21세기
여성의 역할’에서 “20세기는
인류가 상상하지 못했던 생활수
준의 향상 등 큰 변혁을 경험해
온 세기였던 반면 공해와 환경파
괴, 풍요속의 빈곤 등이 현안으로
대두되었다. 이 현상은 고도성장
을 주도해 온 지배적 가치가
소유와 권력, 부의 경쟁을 통한
물질주의였다는 점에서 당연한
귀결”이라고 20세기를 평가하
고, 그러나 여성들은 이런 세계사
의 흐름속에 통합되면서도 ‘주변
집단’의 한계를 탈피하지 못했
다고 밝혔다.

장 교수는 “이러한 여성의
통합과 소외의 모순은 전반적인
교육기회와 고용기회의 확대
속에서도 은폐되어 온 성별분업
과 성별위계적 사회구조에 근거
하기 때문”이라면서 대체로 졸업



후 확실한 사회적 지위와 높은
보상이 보장되는 교육은 남성적
전공과 일치되는 경향이 크다고
진단했다. 반면 고학력여성의
경우 교육을 통해 이런 위치에
편입될 요건을 갖췄음에도 여성
이란 이유로 배제되며 고학력·
고소득자 남성과 결혼이 가능하
다는 사실이 취업의 동기를 약화
시킨다고, 또 저학력 여성들은
저임금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만
직종내 상승의 기회는 원천적으
로 봉쇄된다는 주변집단으로서의
여성현실을 분석했다.

장 교수는 “이러한 현실이
개별 여성의 문제가 아닌 전사

회·국가적 차원의 문제”라고
전제하고 여성인력의 개발과
활용이라는 과제해결이 시급하
고 주장했다. 따라서 전통적 성역
할 고정관념의 편협한 틀을 깨는
데는 △정부나 교육기관의 선도
적인 역할담당 △노동시장내의
‘남성=주류, 여성=주변’이라는
성차별을 극복하기 위해 어느
정도 역차별적 투자의 기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명토론자로 참석한 이은영
(외국어대 법학), 심영희(한양대
사회학) 교수는 각각 “무엇보다
여성의 가사노동 평가에 기반한
재산소유 근거나 주부연금제의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취업기회 논의에서는 여성이
일하는 여성이 아닌 성적 대상으
로 취급되고 있는 현실과악이
중요하다”며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에 앞서 여성일에 대한 바른
평가가 최우선 과제라고 토론.

21세기 위원인 이성호(연세
대) 교수는 “남녀로만 구분해
개별 주체성을 찾기보다 인간으
로서의 공통성을 찾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남녀간 양적 평등보
다 남녀 각각 기능과 존재, 역할
을 인정하려는 인식이 필요하
고 논평하고 이달곤(서울대)
교수는 “남녀간 임금격차가 줄어

들고 있지만 이를 시정할 결정적
요인은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
수준을 높이는 방안과 파트타임
직을 늘려 나가는 방안도 고려돼
야 한다”며 여성들의 전문성확보
노력을 강조했다.

이날 21세기 위원회 위원들은
육아·출산의 사회경력 인정은
인구학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여성을 도전세력화하는
것은 지나친 남녀대립을 낳을
수 있다고 공통된 지적.

이에 윤호미 씨는 “남성이
느끼는 평등사회와 여성이 느끼
는 평등사회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며 도전세력 규정은 여성의
자기개발로서의 도전과 기득권에
대한 도전이며 육아·출산의
경력인정에 따른 인구문제 거론
은 이차적 문제이고 인력난
해결의 열쇠로 여성의 재취업
보장은 절대 필요하다고 답변.

장필화 교수도 “주류를 형성해
온 남성들이 주변 여성집단을
이해하는 폭이 너무 좁다는 느낌
을 받았다”고 말하고 전문성확보
의 지적 등은 중요하나 그간
전문성은 기득권 위치에 편승하
는 것으로 작용해 온 만큼 지배
적 가치의 전환이라는 점에 미래
는 정보나 기술의 독점보다 공유
를 통한 공익을 추구하는 데
역점이 두어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